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215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THEWAYNEWS

주후 2024.9.1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예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다같이

♩ = 64 F F A/C# Dm7 Cm7/A Gm7 G/B Bb/C C7

내 주님 서신발 앞 에 내 주님 서신발 앞 에 내

F/A Cm7 F7 Bb Gm7 C7 F Dm7 Gm7 Bb/C F

주님 서신발 앞 에 나-앞드 러 경배합-니 다 예배 합니 다

성서교독 잠언 14편 다같이

인도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성도들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인도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성도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인도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성도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인도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성도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다같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참회기도나,이웃,교회,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산..... 다같이

인도자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다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십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나눔

말씀읽고 듣기..... 디모데후서 4:1-8 다같이
말씀묵상 다같이
말씀권면 이길주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D G C F C Dm Gm C 3 F

사 랑 의 나 눔 있 는 곳 에 하 나 님 께 서 계 시 도 - 다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말씀기도 다같이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다같이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제자와 선교사입니다

성도들 **보냄 받은 곳에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인도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에서 지켜주십니다

성도들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며, 정결하고 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며, 은혜와 평강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노트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성경말씀 메시지

1-2 그대에게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군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그의 통치를 펼치려고 하시니, 그대는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대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3-5 그대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 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등지고 헛된 망상을 좇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메시지를 살아 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6-8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 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딤후4:1-8] 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묵상노트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30
주일 공동체나눔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30 ~오후 3:00
사모공동체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청년 성경과외	목요일 오전 10:30 ~오후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교육전도사	김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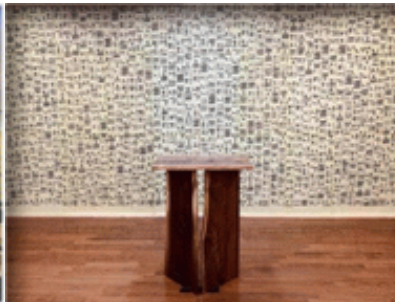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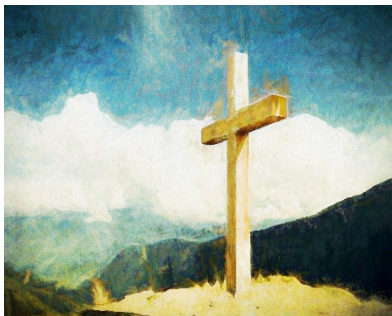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당 이전 관련

현재 예배당은 2020년 3월부터, 참포도나무교회 안준호 목사님께서 길목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내어주신 공간입니다. 길목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건물교회를 지향하지 말고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 본질적인 사역공동체의 사역을 하라는 사명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소명의 말씀을 받은 후 며칠이 안되어 안준호 목사님과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건물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간판도 내걸지 않고 삶 속에서 제자와 선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가고 있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고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이 과정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곳의 이전에 대한 싸인을 미리 주셨고, 이후 안준호 목사님과 미팅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일에 대해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참포도나무교회는 우리 길목교회에 이전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사역하길 원한다면 끝까지 그렇게 해도 될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사역을 위해 우리 교회에 먼저 이전에 대한 싸인을 주셨고, 안준호 목사님께도 '고립은둔청년' 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셔서 이곳을 통해서 하실일을 미리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선하게 이루십니다.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본질적 사역을 표방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처음과 같이 인도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설사 그렇지 않고 이처럼 멋진 장소가 아니더라도, 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 공동체로서 바로 서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역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커피토크 초대손님, '박은혜 선교사'

오늘 오후 나눔시간에는 니제르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박은혜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후 커피토크 시간을 갖습니다. 니제르와 선교사역과 삶에 대한 질문과 응답으로 채워지는 시간, 편하고 모두에게 도전되고 은혜되는 시간 기대해주세요.

예배당 이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길목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참포도나무교회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 공간이고 벌써 4년째 사용중입니다. 이곳이 다른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으로 사용될 일이 있어 연말까지만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후로는 길목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다른 장소가 필요합니다. 건물교회를 지향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이전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함께 해 주세요.

우간다 선교 헌금에 감사합니다

매월 우간다 선교를 위해 선교헌금 모금에 참여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10월이면 우리가 약속한 1년의 기간이 다 되어갑니다. 구영삼, 함윤숙 선교사님의 사역의 더 깊은 중보를 위해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선교편지를 읽고 하나님나라 사역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 모집 (접수중)

내년 봄, 길목교회 9박10일의 그리스-튀르키예 성지순례에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세요.

점심식사 섬김

9월1주 - 김점순 집사 / 9월2주 - 장천, 장현주 집사

길목교회 사역

매주 화요일 청년성경과외 (오전10:30-오후4:00, 길목교회)

매주 목요일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오전10:30~오후3:00, 길목교회)

매주 금요일 사모공동체모임 (오후1:00-오후4:00, 길목교회)